

숨이를 살려 내라!

조습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로컬컵'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월드컵이라는 초유의 현상에 대해 비판적 작품들이 주를 이룬 이 전시에서, 나는 조습의 사진작업인 <숨이를 살려내라!>를 처음 보았다. 그 당시, 월드컵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집단적 광기'와 '민족적 자긍'이라는 상반된 평가로 나뉘었다. 나는 그 상반된 평가 한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냉소를 퍼부었고, 한편으로는 열광하였다. 이러한 모순된 태도 때문에 나는 이 사진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6월 민주항쟁'의 빛나는 대오 위에 월드컵의 맹목적 함성을 겹쳐놓은 이 사진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나의 심리적 채무감을 자극하였고, 나를 불편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진으로 인해 나는, '6월의 민주항쟁' 당시 방관자였음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을 떠안음으로써 자기위안을 얻고자 했던 나의 욕망과 조우하게 되었고, 정의에 대한 상상적 만족만으로 현실의 부정의를 외면하고자 했던 나의 욕망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한열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쌓인 체제모순들이 일시에 분출한 사건이었다. 노동자에서 화이트 컬러를 포괄하는 계급연합은 성공하였고, 군사정권의 '구국호헌'에 맞선 '애국개헌'의 전선은 형성되었다. 군사정권과의 일전을 위하여, '민중'은 스스로, 자신에게 내재된 차이와 이질성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봉인했던 것이다.

'민중'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분수령을 만들었지만, 개혁의 방법과 속도를 둘러싼 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고, 민중에게 회피하기 힘든 선택을 강요하였다. 투사로 남을 것인가? 회의주의자로 전략할 것인가? 극단적 선택의 괴로움은 '민중'에게 가상의 세계를 공모하게 하여, 패배의 현실을 부인하도록 유혹하였다. 이러한 유혹에 빠진 '민중'의 자기기만은 '6월 민주항쟁'의 에토스였던 이한열의 머리 위에 금관을 씌움으로써 완성되었다. 패배의 현실을 부인할수록 금관은 빛을 발했고, 그 빛에 눈이 먼 '민중'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더불어 그들에게 내재되었던 차이의 개봉 또한 유예되었다.

소수자

오늘날 소수자의 처지는 어떤가? 지난날 봉인되었던 '민중' 내부의 이질성은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개봉되었지만, 내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자기기만은 고스란히 소수자에게 전이되고 있다. 소수자는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자신의 타자성을 다수자의 동일성에 회수당한 채, 착한 장애인, 암전한 게이, 성실한 이주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소수자의 삶은 부단한 자기부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현실에 편입되기 위해 자기부정을 선택해야 했던 소수자에게서, 지난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자기공정을 선택했던 '민중'의 전도된 모습이 보는 것은 나만의 착시일까?

자신감

월드컵 때 표출된 '자신감'에 대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것은 물론, 이 둘 사이

의 경험적 근친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우려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자신감'의 전유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기에 앞서, '자신감' 그 자체에 대한 냉소이거나 폄하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자기부정의 역사가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무의식 속에도 기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자기존엄으로부터 자기주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고, 인간존엄성에서부터 인권에 이르는 논리적 유추 사이에 자신감에 대한 경험들이 켜켜히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자신감'이 아직 정향되어 있지 않은 힘이라면, 이제, 자기부정의 독점에서 방향을 틀어 자기긍정의 힘으로 전향시켜야 한다.

다시 조습을 보자

상상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자. '집단적 광기에 의해 희생당한 개인'이라는, 이 사진에 대해 해석을 잠시 유보해 보자. 그리고 가해자가 사진 내부가 아닌, 사진 외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사진 외부에는 누가 있는가? 이 사진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해자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 사진에 대해, '집단적 광기에 의해 희생당한 개인'이라는 바로 그 규정 때문에 희생된 조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규정으로 포박되어 피 흘리고 있는 눈 먼 자신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이 사진에 대한 해석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이 글에서 언급된 '민중'에 대한 규정 또한 열리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의 개방을 통해, '민중'은 비로소 이질적인 힘들이 교차하고, 차이들이 경합하는 열린 장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중'은 존재를 구속하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를 개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붉은 악마의 빨간색은 이제, 더 이상 상징도 아니고 표상도 아니다. 그것은 동일성의 언어로는 회수불가능한 타자성의 분출이고, '민중'의 자기긍정과 함께 '민중'하는 함성이다.

고승욱(작가)